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웃 나와라!’... 설날 앞두고 세시풍속 체험하는 아이들



민족의 대 명절인 설날을 앞둔 7일, 전주시 이계순동화숙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곱게 한복을 입고 웃놀이를 하고 있다.

도내 중기 해외시장 진출 전북자치도, 4자 협약 체결

현대백화점면세점·이베이재팬·지유 등과 '맞손'
K-브랜드몰 입점·일본 큐텐 입점 지원 등 주내용

전북특별자치도는 7일 전북자치도 서울본부에서 현대백화점면세점, 이베이재팬, 지유아이앤씨와 '중소기업 글로벌 수출·마케팅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관련사진 3면>
이번 협약식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과 현대백화점면세점 이재실 대표, 이베이재팬 구지현 대표, 지유아이앤씨 김민성 대표가 참석해 도내기업의 현대백화점면세점 K-brandmall 입점과 일본 큐텐 진출, 크리에이터(인 미디어) 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글로벌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도내 중소기업의 우수한 상품을 홍보하고 이와함께 온라인을 통한 도내 기업의 우수제품이 해외시장에 지속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의 일본 등 해외 수출지원, △현대백화점면세점 K-brandmall과 일본 큐텐 입점 지원, △크리에이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인플루언서 및 마케팅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협력을 통해 도내 많은 우수 상품들이 일본을 포함한 해외 온라인 채널에 진출해 도내 기업의 판로 확대에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아울러, "K-brandmall의 글로벌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오는 10월에 개최하는 세계한인비즈니스가 더욱 풍성하고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전북자치도, 설 명절 연안여객 특별수송대책 추진

여객선 터미널 시설 안전점검... 자체 비상대책상황실도 운영

전북특별자치도는 설 명절 연휴기간을 맞아 군산, 부안 연안여객선 이용객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안전점검 등 설 명절 연안여객 특별수송대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설 명절 특별수송 대비 군산해수청, 해운조합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여객선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여객선 접안시설, 여객선터미널 편의시설 등 시설물 안전점검 및 방역 관리여부를 점검한다.
출항 전·후 운항 관리를 위해 신분 확인, 정원초과 여부, 화물과적, 고박 상태 확인 및 항해 모니터링 강화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선장, 선원 등 현장직원을 대상으로 긴급상황 및 해상사고 대비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설 연휴 기간 귀성객 및 관광객이 집중될 경우 여객선 운항 횟수 임시 증회로 수송능력 확대, 공용주차장 및 공유지를 활용해 임시 주차장 확보를 통한 해상 교통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는 최근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해 여객선 및 터미널 내, 다중이용시설 소독강화, 객실 환기 등 위생·보건 관리에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김미정 전북특별자치도 세민금융양수산국장은 "설 연휴 기간 귀성객이 여객선과 터미널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 및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다가오는 설 명절, 따뜻하고
풍성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전주매일 임직원 일동-

설 연휴 관계로
12일까지 신문 쉽니다.

설 명절, 전북서 특별한 매력 '만끽'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 첫 설 명절을 맞이해 다채롭고 풍성한 문화행사를 운영해 도민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계획이다.

7일 자치도에 따르면, 이번에 준비된 행사는 전통놀이, 체험, 전시, 공연 등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되며, 도민들과 명절 연휴를 맞아 전북특별자치도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전북자치도에서의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계획이다.

전주에서는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모주체험, 웃놀이, 판소리, 풍물놀이 등 전북특별자치도가 자랑하는 전통문화를 방문객들이 흠뻑 느낄 수 있게 준비했다.

자치도내 곳곳 전통체험 행사·전시 등 '풍성'
도립미술관·전주박물관 등 연휴기간에도 운영

익산 교도소세트장과 정읍시립박물관에서도 연휴기간 고구, 투호 등 전통놀이와 맷돌체험 등 다양한 전통체험 등을 준비해 가족과 함께 보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풍성하게 마련했다. 특히, 부안 위도에서 역사가 깊은 풍어제인 띠벵놀이 행사를 진행해 용왕제, 주산들기, 띠베 띄우기 등 평소 도시에서 경험하지 못한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문화의 도시 전북자치도에서는 설

연휴에서도 쉬지 않고 문화 향유 기회를 풍족히 제공한다.
도립미술관은 '전북청년 2024 프리뷰 JMA 예술정원 프로젝트Ⅱ 한낱의 탈주', '전북미술사 연구시리즈 이의주展', '가운데땅 이야기: Kazakhstan All the time'을 주제로 한 기획 전시를 상시 운영한다.
아울러 자치도청 전시실에 '팝아트 바우와우'를 주제로 서양화 개인전을 16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전주 한옥마을역사관에서 '한옥마을 옛 사진 전시' 등 다양한 작품 전시가 이루어진다.
이외에도 도내 국립전주박물관 등 박물관 27개소와 도립미술관을 비롯한 미술관 11개소도 연휴기간 정상 운영한다.
이남섭 전북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 후 첫 명절인 만큼 고향을 찾은 분들에게 전북의 특별한 매력을 보여주고자 많은 준비를 했다."며, "설 명절 전북자치도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함께 오감이 만족하는 행복한 명절연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폐교된 서남대가 새롭게 피어납니다.

전북대 남원 글로벌 캠퍼스

3개 학부 신설

한국어 학당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공간

피어나다 남원

